

『지암일기』를 통해 본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주제 의식

박영민*

<차례>

1. 서론
2. 『지암일기』에 나타난 윤이후의 죽도 생활과 『일민가』의 창작 배경
3. <일민가>에 나타난 자기 술회와 일민 의식
4. 결론을 대신하여-사대부 의식의 지속과 자전적 성격의 강화

<국문초록>

윤이후의 <일민가>는 작가의 친필 일기인 『지암일기』에 수록된 강호가사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윤선도의 손자이자 윤두서의 부친인 것 치고는 학계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편이고 그의 일기 또한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의도를 추정케 하는 단서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암일기』에 비추어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창작 의도를 검토한 다음 <일민가>의 주제 의식을 분석하고 그 시가사적 의의를 논의했다.

남인의 일원으로 정치적 부침을 겪은 윤이후는 망세의 공간이자 창작·수창의 공간인 죽도에서 술회와 우흥의 노래 <일민가>를 창작했다. “述玉泉田家之樂”이라고 한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술회하여 죽도에 초당을 짓고 그곳에 몰입하게 된 계기를 제시한다. “說竹島江湖之勝”이라고 한 후반부에서는 가어웅의 모습으로 죽도의 자연을 완상하며 세사를 잊으려는 일민 의식을 드러냈다.

결국 이 작품은 당대의 혼탁한 정치 현실로부터 벗어나려 한 어떤 사대부의 갈등과 고뇌가 반영된 ‘일민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혼탁한 현실을 떠나 죽도의 자연에 묻혀 살면서도 자신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중단할 수 없었던 사대부 의식이 드러나며,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술회하는 개인적 술회의 성격이 나타

*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난다. 전대의 사대부 의식을 지속하는 한편 자전적 성격을 강화하여 18세기 이후 활발히 창작된 초당계 가사의 형식적 단초를 마련한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 윤선도, 윤이후, 지암일기, 일민가, 강호가사, 자전적 슬회

1. 서론

윤이후(尹爾厚, 1636~1699)의 <일민가(逸民歌)>는 작가의 친필 일기인 『지암일기(支庵日記)』 1698년 6월 26일 조에 수록된 가사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손자이자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부친인 것 치고는 학계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편이고 그의 일기 또한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의도를 추정케 하는 단서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는 한편의 가사이자 일기로서 <일민가>에 주목하여 그 창작 배경과 주제 의식을 고찰한 다음 그 시가사적 위치를 재조명하는 데에 논의의 목적을 둔다.

<일민가>는 구수영에 의해 학계에 소개¹⁾된 이래 17세기 강호가사의 사적 추이를 논의하는 장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주지하듯 17세기의 조선 사회는 임병양란을 겪으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지속과 변화가 혼효되어 나타나는 이행기에 들어선다. 이에 강호가사 연구에서도 17세기에 산출된 작품들을 어디에 위치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일민가>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전대 강호가사의 지속으로 평가하는 입

1) 구수영, 『윤이후의 ‘일민가’ 연구』, 『동악어문논집』 7, 동악어문학회, 1971. 여기에서는 고산 윤선도와 그 일가가 닦아 온 문화/예술적 기반 위에서 <일민가>를 이해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일민가>를 “관계를 떠나 강호에 묻혀 사는 초야일민의 심회를 읊은 상심곡”으로 규정했다.

장²⁾과 변화로 평가하는 입장³⁾이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살핀 연구⁴⁾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합의점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작품의 일면을 통해 거시적 흐름을 해명하려 한 그간의 논의에 반성을 시도하면서 <일민가>에 대한 작품론이 제출되기도 했다. 김명준은 윤이후가 겪은 당쟁과 실각에 초점을 맞추어 <일민가>를 “17세기 중후반 정치참여의 희망가”로 파악했다.⁵⁾ 이어서 조연숙은 <일민가>를 결코 일민일 수 없는 작자의 원망을 강하게 표출한 “원망(願望)의 노래”라고 보았다.⁶⁾ 두 견해는 “상심곡(傷心曲)”이라 한 구수영의 견해와 대비되는 것으로 일민을 표방한 이면에 정치적 재기, 혹은 재출사의 의지가

-
- 2)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342~343쪽. 산림처사로 자처하면서 은일가사의 전형을 마련하고, 이미 공인된 규범을 되풀이한 유형의 작품으로 본 것이다.
- 3)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45, 민족어문학회, 2002, 181쪽; 189쪽. 이 연구에서는 17세기 강호가사에서 주제적 양식의 지배력이 점차 확대된 것을 전대 강호가사와의 차이로 보고 <일민가> 또한 그 연장선 위에 놓인 것으로 파악했다. 곧, 17세기를 기점으로 경험적 현실이나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 과정 연구 - 누정계와 초당계 가사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08쪽; 114~115쪽. 여기에서는 상춘곡 계열에 해당하는 <일민가>가 16, 17세기에 활발히 창작된 누정계 가사의 영향으로 요산요수의 산수경관을 완상한 뒤 연군의식을 표출하는 성리학적 인식 전개 과정을 보이는 동시에 감정의 절제 없이 자신의 과거를 고스란히 서술하여 성리학적 미의식에서 멀어지는 면도 보이고 있다고 논했다.
- 5) 김명준, 「<일민가>의 의식 지향과 시가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나아가 17세기 강호가사가 보여주는 도덕적 근본주의의 퇴색, 즉물적 자연인식 그리고 자궁 의식의 소멸 등을 보이는 바, 전대의 강호가사와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18세기 <낙은별곡(樂隱別曲)> 류와 같은 계통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 6) 조연숙, 「<일민가> 연구 - 작가의식과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 『한국시가문화연구』 22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08.

감추어져 있다고 본 것이다. 이로부터 작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민의 노래인가, 아니면 희망 또는 원망의 노래인가.

한편, 양희찬은 <일민가>의 짜임새에 주목하여 작가 특유의 ‘이중주화 기법(二重奏化技法)’을 통해 “현실적 질곡의 전형과 삶의 이상적 전형의 대비”를 노래한 작품이라고 했다.⁷⁾ 즉 당쟁 및 실각으로 구체화된 현실의 질곡과 유자로서 지녀야 할 삶의 이상을 교묘하게 직조해 낸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단일한 의식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일민가>의 성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 걸음 진전된 인식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에 산출된 어떤 작품에서 상반된 의식이 포착된다면 그것은 당시의 이행기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하게 된다. 여기에서 <일민가>의 시가사적 위치를 규명하는 문제가 다시금 부상한다.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민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단일한 의식의 산물인가, 아니면 복합적 의식의 산물인가. 만일 후자라면, 어떠한 의식이 보다 부각되는가. 둘째, <일민가>의 시가사적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기존의 강호가사를 답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로부터 달라지고 있는가. 이러한 지속과 변화의 양상은 17세기 말, 윤이후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가사 창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주제 의식을 고찰한 다음 그 시가사적 위치를 논한 선행 연구와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17세기 강호가사의 사적 추이를 보다 풍부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양희찬, 「<일민가>의 내적 짜기방법」,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2. 『지암일기』에 나타난

윤이후의 죽도 생활과 「일민가」의 창작 배경

『지암일기』는 윤이후가 1692년 1월 1일부터 1699년 9월 9일, 세상을 떠나기 나흘 전까지 쓴 일기이다. 여기에는 윤이후 본인의 행적과 교유 관계, 해남 윤씨 집안의 대소사, 호남 지역의 풍습 및 생활상 등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⁸⁾ 특히 윤이후가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게 된 경위와 죽도를 경영하며 시를 수창하고 노래를 즐기던 모습 그리고 <일민가>를 짓게 된 계기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윤이후의 작가 의식을 구체화한다면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온 <일민가>의 주제 의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고에서 『지암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윤이후는 호가 지암(支庵), 자가 재경(載卿)이며 서인과 대립한 고산 윤선도의 손자이다. 생부 윤의미(尹義美, 1612~1636)는 그가 출생하기 10일 전에 별세했고 모친은 그를 낳은 지 5일 만에 절사(節死)했다. 마침 고산이 관직에서 물러나 해남에 있던 터라 조부의 슬하에서 자라게 된다. 1679년(숙종 5) 44세의 늦은 나이로 생원시에 급제했고 10년 뒤인 1689년 증광문과에 등제했다.⁹⁾ 성균관전적, 병조정랑, 사간원정언 등을 역임

8)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편, 『지암일기 탈초·표점본』, 정미문화사, 2012, 12~39쪽. 이는 행초서로 쓰여 있는 『지암일기』를 탈초, 표점한 책으로 그 해제도 실고 있어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고에서 『지암일기』를 인용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을 가하려 한다.

9) 생원시에 급제한 1679년은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상으로 조대비의 복제 문제가 재론되어 남인이 서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던 시기이다. 1675년에는 윤선도에게 이조판서가 추증되고 시호가 내렸다. 그리고 문과에 등제한 1689년은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재집권하게 된 해이다. 이렇듯 윤이후가 겪은 정치적 부침은 남인의 성쇠와 동일한 궤도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 뒤 1691년 양친(養親)을 핑계로 함평현감(咸平縣監)에 내려왔다가 1년 만에 관직을 버리고 해남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듯 늦어서야 환로에 진출하게 된 것이나 출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물러나게 된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⁰⁾

함평현감을 사직한 까닭은 암행어사 이인엽(李寅燁, 1656~1710)이 난입하여 전관과 서리를 매질한 사건 때문이었다.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윤이후는 체직을 청하여 벼슬을 그만두게 된다.¹¹⁾ 전임 현감이 대동미(大同米) 상납하는 일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이 문제였고 이에 연루된 윤이후는 대동미를 유용한 혐의로 의금부에서 추고까지 받게 된다. 『지암일기』에는 1693년 9월 해남을 떠나 조사를 받고 11월 귀가하기에 이르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¹²⁾ 당시에 윤이후는 원정(原情)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진흙 차 민결(民結)에 분급했을 뿐,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¹³⁾

10) 구수영(1971), 앞의 논문, 211~217쪽. 여기에서는 “지암 윤이후 소전(小傳)”을 통해 윤이후 출생 당시의 사정과 고산 슬하에서 자라게 된 배경 및 그의 관직 생활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1) 『지암일기』 권3, 1698년 6월 26일 조에 수록된 『일민가』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다: “추침도 거치지 않은 이인엽이 갑자기 들이닥쳐 전관과 서리를 매질했는데, 급기야 그것이 현관에게까지 미쳤다(咸非拙性李寅燁輒入, 杖前官下吏, 及而至縣官).”; “내가 욕을 당하였으나 (벼슬을 그만두는 것을) 허락 받지 못하여 뒤에 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였다. 감사 홍만조가 관직을 면해 주고 영광의 말직으로 보내 줬기에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돌아온 것이다(吾見辱之, 不許, 余則後呈狀乞遞, 而監司洪萬朝解符, 送兼任靈光, 遂棄官歸).”

12)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편(2012), 앞의 책, 15~16쪽.

13) 『지암일기』 권1, 1693년 10월 11일 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矣身濫叨字牧之寄, 粗知任職之道, 豈敢擅用國穀自陷罪辟? 而赴任在於辛未四月, 其時賑政方張, 官無儲穀, 滿庭飢民, 無以賑恤, 方以爲悶爲白如乎, 適於此際, 前官所報, 諺廳題辭, 始爲到付爲白在如中, 三年陳米特許改色爲白乎矣, 有田土無依止者, 不可混同分給, 致有難捧之弊是如. 論理題送乙仍于, 意謂諺廳本意一以爲賑民, 一

윤이후는 자신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전임 현감 이언경(李彦經, 1653~1710)의 무고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이 있은 지 6년여 뒤에 쓴 1698년 2월 23일 자 일기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¹⁴⁾ 이어진 4월 24일 일기에서도 고창 현감이 환곡을 투식한 자를 재조사하여 처리한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언경이 처음부터 나를 연루시키려 한 정황이 지금에 이르러 더욱 분명해졌다(李彦經之初欲延及吾身之狀, 到今益明).”라고 진술한다. 이언경은, 서인으로서 남인을 탄핵하고 기사환국 이후 유배를 당하기도 한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문인이다. 곧 윤이후는 이 사건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윤이후는 해남 옥천(玉泉)에 거처를 두고 죽도(竹島)를 오가며 여생을 보낸다. 윤이후가 죽도를 사들인 것은 1687년이다. 기근에 허덕이며

以爲改色是白乎可。四十石段，貸下於雇馬廳，二十餘石移用於儲置米，四十六石分給於民結。五十餘石載送於上納大同，九十餘石官需應納，民結良中移施出給爲白有臥乎所，雖與無端擅用有異爲白乎乃，既違於事目傳旨內辭緣，惶恐遲晚。” 인용문의 ‘諺廳’은 ‘該廳’의 오기인 듯하다. ‘개색(改色)’이란 곡식이 오래되면 먹을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비축해 둔 곡식을 빌려줬다가 새 것으로 갚도록 한 제도이다. 처음에는 정부의 재정도 안정화하고 굶주린 백성도 구휼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17세기 후반부터는 단지 오래된 곡식을 처분하고 새 곡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렴(加斂)의 폐단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한다. 윤이후는 이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 (박소은, 『17세기후반 호조의 재정수입 확보책』, 『조선시대사학보』 31, 조선시대사학회, 2004, 131~133쪽.)

- 14) 『지암일기』 권3, 1698년 2월 23일 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八馬奴忽至，見興兒書，且得咸平倉金時亮委報，則咸平倉倉色金載益身死之後，癸甲兩年偷食，還上無面，至於八百餘石之多。時倅李彦經患其指徵無處，欲爲蕩滌之計，具由請報逃使。巡使金守抗啓聞，則朝家以爲當該官員監官立單子等，不能無罪，查問處置，次姓名成冊，啓聞云爾，則當該官員卽權卜省也。時倅卽爲走通權也，招致其時色更高再斂，吏方李之柱，任意相議貽書。時倅使之更報，以癸甲無面，分錄於辛未以下，其意蓋不欲獨當也。聞其更報，則吾與沈枋、李榮漢皆在其中，故巡使以爲前後所報懸殊，別定查官於茂長而更查之。茂長倅卽李相周也。聞彦也必欲混入，吾與沈、李於其中，密囑茂長云。事之可駭，有如是哉!”

호구책을 찾던 성준익에게 육지의 전장을 떼어 주고 얻어 온 것이다. 남들은 육지의 땅을 작은 섬과 바꾼다며 만류했지만 자신은 죽도의 승경을 탐한 것이기에 거리낌 없이 강행했다고 한다. 죽도에 본디 정자를 세울 생각이 있었으나 죽도를 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벼슬길에 나아갔고 추고를 받아야 했으며 기근에 대처해야 했던바,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야 초당을 얻었다고 했으니 초당을 지은 시점은 1695년임을 알 수 있다.¹⁵⁾

윤이후에게 죽도는 혼탁한 세상을 잊고 살아가기 위한 망세(忘世)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남현감과의 대화를 기록한 1694년 6월 27일 자 일기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 윤이후는 세상에 뜻이 전혀 없어서 오직 밭 갈고 우물 파는 것을 일삼을 뿐 구차하게 벼슬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¹⁶⁾ 아울러 서울에 있느라 죽도를 보지 못했던 셋째 아들 종서(宗緒, 1664~1697)가 비로소 죽도를 돌아본 뒤 출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신을 경계하면서 “이 죽도가 있어 세상을 더욱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 말이 실로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이었다고

15) 『지암일기』 권2, 1695년 12월 4일 조에 <죽도초려기(竹島草廬記)>라는 제목의 기문이 수록되어 있다. “往在庚寅之歲，昌寧成公峻翼甫，築島之東西隅而爲堰，遂成連陸之地，仍居于島之南岸。後三十八年，丁卯歲大侵，成公欲斥賣爲救死之計，余以陸庄易之。…(중략)…當初余之圖占也，人皆笑余以陸換海之迂，而余獨排衆議而決之。余之意若在廣田，則豈爲是也？蓋取島之勝賞，湖中無偶也，此程明道詩，傍人不識，余心事者也。余忽得此之後，長在洛下，遠莫能經紀，逮夫壬申，自成歸田之後，先就堰堤補土而實其築，…(결략)…將次第爲結構之事，以遭憂未果，…(결략)…準擬營立亭樹，以爲往來偃息之所，區非但…(결략)…歲，又凶獸阻飢之患，迫在朝夕，何暇念及於外。余…(결략)…無限風光，任作八九年閑業之地，非徒負我初心，其於負我湖山何如也。”

16) 『지암일기』 권1, 1694년 6월 27일 조: “頓無斯世之意，唯以耕鑿爲事。…(중략)…及至時事纒覆，前日之議者，始服余意，況嘲我者投竄，想必羨我之不暇矣。噫！吾固昏黑，非有先見於今日之事，而第有所慨然者，不欲苟容故也。向日之當路諸宰，投竄南方者，皆賀余脫然於禍網。余答曰，‘僕本庸陋，何敢預於患亂之中乎？’聞之者，或以余言爲不厚云。”

진술한다.¹⁷⁾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죽도는 다양한 작품을 산출하는 창작의 공간이기도 했다. 앞서 소개한 <죽도초려기>에는 “시도 함께 지었다. 시는 먼저 쓴 일기에 제시했으니 ‘간’ 자 운을 사용한 두 작품이다(并詩. 詩現上, 卽千字韻兩首也).”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즉 초당을 지은 뒤 시도 짓고 기문도 지은 것으로 부제에서 언급한 두 시는 각각 1695년 10월 21일, 23일자 일기에 나타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결락된 부분이 많아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후자에 보이는 시는 아래와 같다.

新構超然俯碧端	새로 지은 초당에서 초연히 푸른 물결 굽어보니
一邊風物入平看	저 편외 경치 한 눈에 들어오네
竭來世事都遺落	힘이 다하여 세사를 모두 잊었으니
休遣塵喧到必干	소란한 세상 내게 이르지 않았으면

새로 엮은 죽도 초당에서 바다를 굽어보며 세사에 지친 마음과 더 이상 그것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노래한 작품이다. 앞에서 살핀 바 소란한 세상을 잊으려는 윤이후의 망세 의식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로써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다시 단가(短歌) 한 편을 지었다면서 한시에 이어 시조 한 수를 소개한다.

世上이 버리거늘 나도世上을 버린 後의
 江湖의 님자 되야 일 업시 누어시니
 어즈버 富貴功名이 쏘이론 듯 흐여라¹⁸⁾

17) 위의 글: “余之圖占竹島有年, 而宗緒以在京之故, 尙不得見. 今日始隨我而去, 登覽未周, 有心傾目倒之喜, 可想其所見之不甚凡陋, 仍及時事, 戒余以不可出之意, 而曰: ‘有此竹島, 尤可以忘世.’ 云云. 兒之此言, 實獲我心, 不勝歎賞.”

이 시조는 <일민가> 뒤에 여음(餘音)으로 붙어 있는바 <일민가>를 창작한 이후 여운이 있어 지은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이다. 논자들이 1698년 6월 26일 조에 수록되어 있는 <일민가> 부분만 보아 왔기 때문인데 사실은 <일민가>를 창작하기 약 3년 전에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시조라는 장르의 특성상 자세한 사연을 담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버린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나아가 혼란한 정치 현실을 떠나 강호 주인을 자처하는 의식은 이 작품뿐만 아니라 『지암일기』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일민가>를 해석하는 주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두 편의 한시는 『지암일기』에서 ‘초려운(草廬韻)’, ‘간자운(干字韻)’, 또는 ‘단자운(端字韻)’ 등의 이름으로 지칭되는데 가문 안팎의 여러 인사들이 여기에 화운(和韻)하여 시를 지었고 윤이후는 이 때 주고받은 시들을 엮어 『죽도창수록(竹島唱酬錄)』을 만들었다고 한다.¹⁹⁾ 이 책은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암일기』 1695년, 1696년 조에 해당 시문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 그 대강을 파악할 수는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의 작품으로는 윤이후의 넷째 아들로 백부에게 출계한 공재 윤두서의 차운시 5수와 서문을 꼽을 수 있다.²⁰⁾ 즉 교유 인사들과 시를 수창하는 것도 죽도 생활의 주요한 일부였던 것이다.

나아가 시가를 창작, 향유한 흔적도 『지암일기』 곳곳에 나타난다. 앞에

18) 1695년 10월 23일 자 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종장 일부가 결락되어 있다. 결락된 부분은 1698년 6월 26일 조에 실려 있는 <일민가> 여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온전한 작품을 제시했다.

19) 『지암일기』 권2, 1696년 2월 13일 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余之竹島端字韻和之者多, 余欲哀集一卷, 以爲他日替面之資. 余手粧冊子, 題其面曰, 『竹島唱酬錄』, 雖不足爲傳後之物, 亦可使子孫知余閑中事也歟?”

20) 『지암일기』 권2, 1696년 6월 10일 조.

서 일부 인용한 <죽도초려기> 끝에서도 자신의 죽도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거문고 가락에 맞춰 노래하고 자연을 따라 노닐면서 호호연(浩浩然)하니 세사를 잊게 되었다는 것이다.²¹⁾ 또한, 1692년 6월 15일부터 1694년 10월 22일 사이의 일기에는 김운장(金雲章)이라는 인물과 교유했던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르면 김운장은 윤이후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선향(善香) 등의 여중들에게 우조 삼중대엽과 복전 등의 노래를 가르쳤던 가객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그리고 윤이후는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벗들과 노닐 때면 선향을 데리고 가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기도 했다.

草堂 清絶地에 群賢이 모드시니
 蘭亭勝宴이 오늘과 엇더턴고
 잔 잡고 들드려 못노니 네야 알가 호노라

윤이후는 ‘만덕(萬德)’이라는 모임에서 흥이 오르자 스스로 시조를 읊기도 했다. 거문고, 가야금을 들고 찾아 온 벗들과 함께 달빛을 보면서 술잔을 주고받고 가악을 즐겼던 것이다.²³⁾ 인용한 작품은 당시에 창작한 시조인데 청절한 곳 죽도에 모인 벗들을 “군현(群賢)”으로 높인 다음 자기들의 모임을 왕희지가 ‘난정(蘭亭)’에서 베푼 연회에 빗댄으로써 흥취를

21) 『지암일기』 권2, 1695년 12월 4일 조: “中有鶴髮翁, 無思無慮, 若君若痴, 客來則開顏而笑, 興至則和瑟而歌, 或倚杖而觀魚, 或步渚而狎鷗, 悠悠然浩浩然, 作無懷葛天氏民, 人或問其姓名, 則翁菴□而答曰, ‘老而忘之’云.”

22) 『지암일기』 권1, 1692년 11월 24일 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金雲章, 教善香羽調第三中大葉, 及殿兩歌而去.”

23) 『지암일기』 권3, 1698년 10월 18일 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是夕花村安友衡相、寒泉門長及其胤鼎美、壻郎李弘任、宝巖尹侃來。曾於萬德之會, 以今日爲期也。寒泉琴笛, 花村偈偈來。初坐松陰, 日入後, 移席房中, 夜甚月上, 潮滿, 又爲露坐, 余略設杯盤, 相與樂甚, 余偶吟短歌” 이 작품은 구수영(1971), 앞의 논문, 223쪽에 소개되었으나, 그것이 향유된 정황은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다.

고조시키고 있다. 술잔을 잡고 달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에서 절정에 달한 즐거움과 초연한 정취가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로써 연회 현장의 분위기에 맞추어 시조를 지을 수 있었던 윤이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죽도를 오가며 세상을 잊으려 한 윤이후는 그곳의 자연에 몰입한 채 다른 사람들과 시를 주고받거나 노래를 짓고 부르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윤이후가 <일민가>를 창작한 것도 이러한 그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작품은 1698년 봄, 외숙인 한성부참군(漢城府參軍) 이명(李潞, 1634~1698)이 쓴 <환산별곡(還山別曲)>에 화답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이다.²⁴⁾ 서울에 있는 외숙이 한가한 틈을 타 내려오면 노래를 잘하는 여중으로 하여금 두 곡을 부르게 함으로써 소일을 삼고자 했으나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소서(小序)』에 전한다. 특히, “술회(述懷)”와 “우흥(寓興)”이라면 자득한 것이 없지 않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²⁵⁾

지난 봄, 참군을 지낸 외숙께서 <환산별곡>을 지었다. 무릇 가곡은 문자가 많으면 부녀자나 아이들이 보기 어려우므로 예나 지금이나 가곡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이언을 사용하여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지금 <환산별곡>을 보면 문자가 너무 많고 때로는 고시 친구도 사용했다. 나는 자못 이것을 병폐로 여겨 이언으로 장가를 지어 화답했다. 비록 불만한 것은 없으나 술회와 우흥이라면 한가로이 노닐면서 자득한 것이 있다. 제목을 <일민가>

24) 강전섭, 『「상춘곡」의 작자를 둘러싼 문제 - 「일민가」와 「상춘곡」의 화동성』, 『동방학지』 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234~238쪽.

25) 『지암일기』, 1698년 6월 26일 조에 수록된 <일민가> 뒤에는 다음과 같은 「소서」가 전한다: “往在春間, 參軍渭陽作<還山別曲>以示之, 余見而喜之. 乃作<逸民歌>以和之. 雖無拙可笑, 而其述懷寓興, 則不無自得者矣. 淮擬渭陽之乘秋下來, 吏雪兒緩踏兩關, 以爲兩老消日之地矣. 豈料渭陽北歸, 未幾凶音遽至乎? 初爲助歡而成者, 今作傷心之曲, 人事之不可知者, 如有哉! 嗚呼痛矣! 戊寅夏支淹翁書.”

라고 했다.²⁶⁾

선행 연구는 <일민가>의 『소서』만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나 문학적 측면에서는 위의 인용문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소서』와 달리 두 작품에 대한 비평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환산별곡>은 한문 어구나 전고를 지나치게 활용하여 부녀자나 아이들이 보기 어려우므로 <일민가>를 지을 때에는 되도록 우리말을 구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²⁷⁾ 한편, <일민가>의 장치로 “술회”와 “우흥”을 꼽은 점은 『소서』와의 공통점이다. 이로부터 노래를 짓는다는 것은 부녀자나 아이들에게 보일 것을 전제로 한다는 윤이후의 관점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일민가>를 술회와 우흥의 노래로 인식하는 윤이후의 창작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죽도창수록』을 엮으면서 “자손으로 하여금 내 한가한 중의 일을 알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亦可使子孫知余閑中事也歟)?”라고 말한 것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남인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은 윤이후는 더 이상 벼슬을 구하지 않고 죽도의 자연에 몰입하려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죽도는 망세의 공간이자 창작·수창의 공간으로 한시와 시조, 가사

26) 『지암일기』, 1698년 5월 4일 조: “向在春間參單渭陽作<還山別曲>, 凡歌曲文字多, 則婦孺難見, 古今作之, 必以俚語者, 蓋得此也. 今觀<還山別曲>文字太多, 或用古詩全句, 余頗病之, 用俚語作長歌和之. 雖無可見, 而其述懷寓興, 閑放自得者, 則有之, 名之曰, <逸民歌>.”

27) 강전섭(1980), 앞의 논문에서는 <상춘곡>과 <일민가>의 ‘화동성(和同性)’을 분석하여 <상춘곡>과 <환산별곡>을 같은 작품으로, <상춘곡>의 작가를 <환산별곡>의 작가인 이명으로 비정했다. 하지만 윤이후의 평가에 따르면 <환산별곡>은 한문 어구나 전고를 지나치게 활용하여 노래로는 부족한 작품인바, 둘 사이의 화동성을 전제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상춘곡>과 <환산별곡>을 같은 작품으로 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및 기문 등을 산출하는 동력이 되었다. 특히 시가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술회와 우흥의 노래로서 <일민가>를 창작하여 회포를 풀고 여흥을 일으켰다. 윤이후의 이러한 죽도 생활과 문예 창작은 금쇄동(金鎖洞)에 은거하면서 <금쇄동기>와 <산중신곡>을 쓰고 보길도를 경영하면서 <어부사시사>를 지은 조부, 즉 고산 윤선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해남윤씨 가문의 문화적 역량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이후와 교류했던 인사 가운데에도 그를 보면서 고산을 떠올리는 이가 적지 않았다.²⁸⁾

3. <일민가>에 나타난 자기 술회와 일민 의식

『지암일기』에 실려 있는 <일민가>는 전체 62행의 강호가사인데 윤이후는 25행에 주석을 부기하여 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했다. 다시 말해 24행까지는 옥천 전가에서의 즐거움을 술회했고 25행부터는 죽도의 자연 풍광을 노래했음(此以上述玉泉田家之樂, 此以下說竹島江湖之勝)을 명시한 것이다. 이 작품의 단락 구성에 대해서는 7단 구성으로 본 견해²⁹⁾가 있고,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파악하되 내용에 따라 세분한 견

28) 『지암일기』, 1696년 6월 27일 조에는 안서한(安瑞翰)이 쓴 <죽도기(竹島記)>가 수록되어 있다. 윤이후의 초려운(草廬韻)에 차운하면서 기문도 작성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昔孤山尹先生, 世與相達, 不得安於朝廷, 言不見用, 寄雅德於物外, 舉世譽之而不加勸, 舉世非之而不加沮, 從其所好, 樂其所性, 遂於南爲之後, 卜其地之絕勝而托寓專者, 有二, 一則金鎖其洞也, 一則甫吉其島也. …(중략)… 孤山之孫, 有持平尹載卿, 遞官歸鄉, 亦無意於世, 無求於人, 日孜孜於職分之內, 不數數於命數之外, 迺於花山之下, 智得一島, 以爲逍遙棲息之所, 而此地素多黃岡之竹, 故其名爲竹島也. …(중략)… 甫吉金鎖得孤山而名益彰, 今此竹島獲載卿而號彌著, 未知此亦有數存於其間耶? …(중략)… 繼孤山之遺獨者, 惟載卿一人而已. 嗚呼! 孤山可謂爲孫矣.”

29) 구수영(1971), 앞의 논문, 220~223쪽; 김명준(2005), 앞의 논문, 147쪽.

해³⁰⁾가 있는데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은 후자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작가의 분석을 따라 ‘전반/후반의 구성’을 염두에 두면서 <일민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몸이 느지 나서 世上의 흘 일 업서
江湖의 님자 되야 風月노 늘거 가니
物外淸福이 업다야 흐라마는
도르혀 싱각흐니 애 드론 일 하고 만타 [〈일민가〉, 1行~4行]

인용문은 <일민가>의 서사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현재 자신의 삶을 강호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상에 늦게 태어나서 쓰일 일이 없다는 식의 부정 형용사로 부연되기 때문이다. 물외청복 또한 없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만 주어졌을 따름이다. 이렇듯 강호 주인으로서의 삶을 부정 어법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애달픈 일이 많았던 자신의 과거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화자는 애달팠던 자신의 과거로 인해 현재 자신의 삶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관심의 초점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옮겨 가게 된다.

萬物의 貴흔 거시 사름이 웃듬인디
그 둥의 男子 | 되야 耳目聰明 ㄹ초 삼겨
平生의 머근 쁘디 一身富貴 아니러니
年光이 倏忽호고 志業이 蹉跎호야

30) 양희찬(2010), 앞의 논문, 165쪽. 여기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독립적인 짜임새를 보이면서도 <일민가> 전체가 기승전결의 틀로 직조되어 있음을 밝혔다.

白首功名을	계유 구러 일워 내니	
蹤跡이 齟齬호고	世路도 崎嶇호야	
數年郎潛의	늬 뵈와 든니더니	
三春暉 수이 가니	寸草心이 그지업서	
銅章을 비러 츠고 ³¹⁾	五馬를 밧비 모라	
南州 百里 地에	與民休息호라터니	
니마 흰 모던 범이	어드러서 나닷 말고	
굿기 여론 宦情	一朝의 지 되거다	[<일민가>, 5行~16行]

서사를 제외한 전반부는 다시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인용한 것은 그 중의 앞 단락이다. 서사에서 예견되었듯 화자는 정치적 부침을 중심으로 지나온 자신의 삶을 슬회하고 있다. 평생 먹은 뜻이 일신의 부귀가 아니었음을 되새긴 다음, 늦은 나이에 겨우 등제했으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낮은 벼슬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을, 가뜩이나 환로에 뜻이 없어 양친을 핑계 삼아 외직에 나왔지만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그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었음을 회고하는 것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강호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소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석을 달아 시행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은 <일민가>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니마 흰 모던 범이 / 어드러서 나닷 말고”라고 은유한 다음, 주석을 통해 “추첨도 거치지 않은 이인엽이 갑자기 들이닥쳐 전관과 서리를 매질했는데 급기야 그것이 현관에까지 미쳤다(威非抽姓李寅燾輒入, 杖前官下吏, 及而至縣官).”라며 그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로부터 “니마 흰 모던 범”이라는 표

31) 소주(小註)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외직을 청한 까닭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爲親乞外故云).”

현이 ‘범 인(寅)’에 ‘빛날 엽(燁)’이라는 이인엽의 이름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민가>가 한편의 가사이면서 일기이기도 했음을, 윤이후의 창작 의도가 자신이 겪은 정치적 탄압을 일기로써 남기는 것이기도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저즌 옷 버서 노코	黃冠을 7라 쓰고	
채 흐나 떨터 쥐고	浩然이 도라오니 ³²⁾	
山川이 依舊호고	松竹이 반기는 듯	
柴扉를 츠자 드러	三逕을 다스리니	
琴書 一室이	이 아니 내 分인가	
압 내히 고기 낫고	뒤 퇴히 藥을 키야	
手業을 일노 사마	餘年을 보내오니	
人生 至樂이	이 밝기 쏘 업dot데	[<일민가>, 17行~24행]

위 부분은 전반부의 두 번째 단락으로 환로를 떠난 화자가 고향에 돌아온 기쁨을 노래한 대목이다. 여기서부터 화자의 목소리는 생기를 띠기 시작한다. 젖은 옷이 환기하는 벼슬 생활을 떨쳐 내고 야인이 되어 돌아오니 고향 산천도 자신을 반길뿐더러 자기 분수에 맞게 거문고와 책이 놓인 한 칸의 방까지 갖추어져 있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서사에서 쓰일 데가 없다고 했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고기를 낚고 약을 캐는 등 손수 해야 할 일을 접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관직을 버리고 옥천으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인생의 지극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소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내가 옥을 당하였으나 (벼슬을 그만두는 것을) 허락 받지 못하여 뒤에 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였다. 감사 홍만조가 관직을 면해 주고 영광의 말직으로 보내 줬기에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돌아온 것이다(吾見辱之, 不許, 余則後呈狀乞遞, 而監司洪萬朝解符, 送兼任靈光, 遂棄官歸).”

작가 자신의 분석에 따르면 앞에서 본 5행에서부터 이미 옥천 전가에서의 생활을 다루었어야 했을 것이지만, 실제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이 8행으로 매우 짧게 나타난다. 이마저도 옥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진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옥천 생활을 묘사한 부분은 20행부터 24행까지의 5행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짧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윤이후가 옥천보다 죽도에 더 오래 체류하면서 옥천을 치유의 공간으로 죽도를 재기의 출발처로 생각한 결과라고 본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³³⁾ 윤이후에게 옥천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으로 작용했음을, 옥천과 죽도는 조금 다른 층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을 밝힌 논의라고 할 수 있다.³⁴⁾

다만, “述玉泉田家之樂”이라고 했음에도 옥천에서의 삶을 짧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도에 초당을 짓고 그곳을 망세의 공간으로 삼게 된 계기를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이후는 옥천에 살면서 죽도를 오갔는데 작품 내에서는 관직을 떠나 옥천을 거쳐 죽도로 가는 것으로 설정한다. 곧 죽도에 다다른 인생 역정, 초당에 머물게 된 삶의 계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술회하는 데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상처를 씻기 위하여 마음의 지향을 고향인 옥천에 두고 지나온 삶을 돌아본 결과, 술회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장에서 논의했듯 윤이후는 <일민가>를 “술회”와 “우흥”의 문학으로 자평했는데 술회의 문학이라 한 이유는 이와 같은 전반부에서 찾을 수 있다.

33) 김명준(2005), 앞의 논문, 150~152쪽.

34) 양희찬(2010), 앞의 논문, 150~154쪽. 여기서는 이 단락의 핵심이 과거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있음을 논했는데, 이 역시 과거의 상처를 씻고 앞으로의 삶을 모색하려 한 작가의 의도를 강조한 것으로서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田園의 나쁜 흥을	전나귀에 모도 시러	
靑莎白石 夕陽路의	홍치며 도라오니	
縹緲흔 一片孤島	眼中的 奇特흔디	
微茫흔 十里烟波	조차 어이 들렀노고	
三山이 흘러온가	五湖과 엇터흐니	
蒼松은 落落하고	翠竹이 猗猗흔디	
超然흔 草堂 數間	물 우희 빗겨시니	
幽趣도 ㄴ이 업고	爽快도 ㅁ이 업다	[<일민가>, 25行~32行]

죽도의 자연 풍광을 노래한 후반부는 다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옥천에서 죽도 초당으로 들어가는 대목이다. 서사에서 부정 어법으로 시상을 열었던 것과 달리 “田園의 나쁜 흥”이라는 등의 여유로운 어조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천 생활의 남은 흥을 다리는 나귀에 모두 싣고 홍치며 돌아온다는 데에서 화자의 소박한 풍류를 엿볼 수 있다.³⁵⁾ 이어서 망망대해에 외로이 뜬 섬의 모습과 자연에 깃들여 초연한 초당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죽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예찬하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장소로 들어온 기쁨을 나타낸 것이다.

白日이 閑暇흔디	봄즈이 足한 後의
발 나쁜 낙시대를	엇게에 두러메고
扁舟를 흘러 저어	任意로 容興흐니
江風은 習習하야	鶴髮을 鬪부치고

35) 김천택의 시조에 유사한 표현이 있다: “田園에 나쁜 흥을 전나귀에 모도 싣고 // 溪山 나쁜 길로 홍치며 도라와서 // 아희 琴書를 다스려라 나쁜 희를 보내리라.” (김천택본 『청구영언』, #261) 선후 관계를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일민가>가 보다 앞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래에 조예가 깊었던 윤이후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白鷗는 飛飛하야 버디 되야 넘노는다
 …(중략)…
 人間의 꿈을 씌야³⁶⁾ 世事를 다 버리니
 滄浪 蹤迹 알 리 업다 漁釣 生活 누 드토리
 박잔의 술을 브어 알마초 머근 後의
 水調歌를 기리 읊고 혼자 셔셔 우즐기니
 浩蕩흔 미친 興을 흥혀 아니 넘 알게고 [<일민가>, 33行~49行]

인용문은 죽도에서의 낮 생활을 읊은 대목이다. 이 부분은 선유(船遊)의 흥취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는데,³⁷⁾ 뱃놀이보다 중요한 것은 화자의 일상이 어부의 생활로 표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낚싯대를 둘러메고 편주에 올라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는, 전형적인 가어옹(假漁翁)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부사(漁父辭)>를 쓴 굴원의 행적을 전고로 하여 다룰 이 없는 어부 생활의 묘미와 은자로서 자신의 삶을 부각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어부의 생활에 가탁한 데에는, “人間의 꿈을 깎다거나 “世事”를 다 버렸다는 말에서도 드러나듯 죽도의 자연에 몰입하여 세상을 잊으려 한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잔의 술과 “水調歌” 한 곡조에 화자의 흥취는 절정에 오른다. 수(隋) 양제(煬帝)가 강도(江都)에서 읊었다는 “수조가”를 취한 까닭은 자연에 묻혀 살면서 세상에 나서지 않으려는 뜻을 표명하기 위함일 것이다.³⁸⁾ 이와 같이 어부의 형상을 한 화자가 배 위에 올라 “수조가”를 부르는

36) 소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큰 꿈을 누가 먼저 깨었는가?” 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取大夢誰先覺之意).”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초려할 때 제갈량이 읊은 시구를 인용하여 환로에 나아가 세상을 경영하려는 것이 한갓 꿈에 불과함을 깨달았다는 뜻을 부각한 것이다.

37) 김명준(2005), 앞의 논문, 152~154쪽.

38) 양희찬(2010), 앞의 논문, 159~160쪽. 여기서는 “정계를 떠나 다시는 정계로 돌아가

모습은 ‘어부가(漁父歌)’ 전통의 자장 안에 있는 것이면서 조부인 윤선도가 <어부사시사>에서 보여준 면모이기도 하다.³⁹⁾ 그 발문에서 “또 뒷날의 창주 일사가 만드시 이 마음에 동참하여 영원토록 서로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且後之滄州逸士, 未必不與此心期, 而曠百世而相感也).”⁴⁰⁾라고 한 것을 손자 윤이후가 죽도의 일사가 되어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흐마 저물거나	먼 뫼히 달 오른다	
그만헝야 쉬여 보자	바회예 톱 띠여라	
平凉子 빗기 쓰고	烏竹杖 훗더디며	
沙堤를 도라드러	石逕으로 올라가니	
五柳宅 瀟灑헝딤	景物이 새로왜라	
松陰의 훗거르며	遠近을 브라보니	
水月이 玲瓏헝야	乾坤이 제곱인 듯	
熙熙皞皞헝야	身世를 다 니줄다	[<일민가>, 50行~57行]

어느 덧 날이 저물고 밤하늘, 먼 산에 뜬 달을 보며 절정에 오른 흥취를 다스리고 있다. 달빛 아래 세상이 모두 새롭게 보이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화자 자신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곧 서사에서는 감지할 수 없었던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결국 화자는 태평한 시대를 사는 백성이 된 것처럼 즐거워하며 자신과 세상을 다 잊었다고 말하는 경지에 이르

지 않고 강호에서 살 뜻을 굳힌 함의를 “수조가”에 담은 것”이라고 보았다.

39) 긴 날이 저르는 줄 興의 미쳐 모르도다

돌 디여라 돌 디여라

빗대를 두드리고 水調歌를 불러보자

至匆忽 至匆忽 於思臥

款乃聲中에 萬古心을 기 뉘 알고 (『孤山遺稿』 卷之六下, <漁父四時詞> 夏6).

40) 『孤山遺稿』 卷之六下, <漁父四時詞>. 본문에 제시한 번역문은 “이형대 외,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332~333쪽”을 인용한 것이다.

게 된다. 환로에 나아가 세상을 경영하려던 뜻도, 환해풍파로 인해 애달팠던 자신의 과거도, 자신을 버린 세상과 그에 대한 애타는 미련도 모두 잊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부가 되어 죽도의 자연에 몰입하며 흥을 일으킨 결과인바 작가 스스로 <일민가>를 두고 “우흥”의 문학이라고 한 까닭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위 단락에서 화자의 쓸쓸함과 슬픔의 목소리를 읽어 내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한다.⁴¹⁾ 이러한 해석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윤이후가 1692년 4월 24일 서울에 있는 사촌 형 윤이석(尹爾錫)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기에서 죽도의 삶을 고통스럽고 쓸쓸하다고 전했다는 것인데 환로를 떠나게 된 직후라서 울적한 심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당시는 죽도에 초당을 짓기 이전이다. 편지의 내용 또한 죽도에 독을 쌓거나 팔마에 집을 짓는 등 노역이 한꺼번에 겹친 데에다가 농번기가 되어 어렵다는 자신의 근황을 전한 것이며 서울에 남아 있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죽은 아이의 케연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을 전한 것이다.⁴²⁾ 따라서 이 편지가 죽도에 대한 윤이후의 인식을 담아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상세히 논한 까닭은 윤이후가 죽도를 재기의 출발처로 여기거나 <일민가>를 정치 참여의 희망가, 혹은 원망의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41) 김명준(2005), 앞의 논문, 154~155쪽.

42) 『고문서집성 3 - 해남윤씨편 정서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526쪽: “頃日奴還, 伏承下書, 迨用伏慰, 厥後無便, 此時起居如何, 兒屬亦皆好在耶? 菴紆不能已, 弟待下堇遺, 妻病, 來此之後, 不復發作, 良幸良幸. 竹島堰役, 八馬營造, 泰梁石物, 三大役一時並舉, 而役力綿薄, 且當農節, 從當某條還報, 而役事賴以粗完, 此亦兄主之賜也, 伏幸伏幸. 洛下消息, 近來如何? 落此窮遐, 漠不能聞知, 極菴極菴. 弟之歸期, 枯無預料, 而在洛兒輩, 久與分張, 且無料賴之道, 至於亡兒凡筵, 若置之相忘者, 此間心事, 如何狀言. 性兒之病, 積年沈苦, 尤用悶迫 …결락… 歷入告歸, 拔忙只此不備, 伏惟下鑒. 壬申四月二十四日, 從弟, 爾厚.”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민가> 자체와 그를 둘러싼 여러 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다시 출사할 것을 바라는 욕망이 아니라 세상을 잊고 죽도의 자연에 묻혀 살려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제목에 나타나는 바, 『지암일기』와 <일민가>를 관류하는 것은 윤이후의 일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서(自敘)>에서 스스로를 “늙어서 그 나이와 성과 이름까지 잊은 자”라고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⁴³⁾

이 中의 미친 ㅁ음	北關의 들러시니
謝安의 絲竹陶瀉	네 일이 오늘일쇠
내 근심 無益흔 줄	모르디 아니 헛디
天性을 못 變히니	眞實노可笑 로다
두어라 江湖의 逸民이 되야	祝聖壽 나 흐리라

[<일민가>, 58行~62行]

일민 의식을 표방하며 세상을 다 잊었노라고 노래했지만 말처럼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 부분은 결사인데 동산(東山)에 은거하여 풍류로써 근심을 달래려 한 진(晉)나라 사안처럼 “北關”에 달린 멧힌 마음을 없애려 했지만 변하지 못할 자신의 “天性”으로 인해 “근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것이 무익한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말이다. 이는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요 지울 수 없는 기억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낙구(落句)의 “두어라”라는 시어는 이렇듯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어찌할 수가

43) 『지암일기』 1694년 8월 8일 조: “翁南海上人也. 質魯而氣疲, 性懶而心拙, 少多病不齒於人, 晚竊科第, 抹撥於世, 乃投, 緩歸鄉里, 怡然自得, 若將終身, 此翁之出處也. 翁平生無嗜好, 無才藝, 無支於是非, 不及於榮辱, 世以之忘翁, 翁亦以之忘世. 惟以課農業, 教兒孫爲務, 此翁之事業也. …중략… 翁何許人也? 老而忘其年與姓與名.”

없는 화자의 심정을 잘 드러낸다. 결국 화자는 “江湖의 逸民”으로 살면서 임금의 안녕을 기원하는 즉 “祝聖壽”하는 나름의 타협안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사실 위의 결사는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대목이다. 북궐의 처분과 임금의 안녕을 운운한 것이 정치적 재기의 꿈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희찬은 58, 59 두 행은 결사가 아니라 후반부에 속하여 후반부를 정리하는 것이고 60~62행 세 행이 이 작품의 결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곧 58행의 “미친 미움”은 “北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與民同樂의 治世”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60행의 “근심”은 해결책이 없는 ‘이인엽의 난입 사건’, 즉 당시의 부정적인 정치 현실로 해석하여 그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전자의 경우 삶의 이상적 전형으로 당대의 보편적 가치관을 나타낸 것이고 후자의 경우 현실적 질곡의 전형으로 작가의 굴곡진 인생을 나타낸 것인바 <일민가>는 두 가지 의식을 교묘히 직조해 낸 것이지 재출사의 의지를 표명한 작품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 견해이다.

그런데 58~62행은 세상을 잊으려 하나 잊히지 않음을 노래한 부분으로 내용상의 응집력이 강하여 둘로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결사가 해결책조차 없는 ‘이인엽의 난입 사건’에 아직도 얽매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면 작품 전체의 의도가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작가의 정신적 외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품에서 보아 왔던 것은, 흥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것을 술회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화자가 일민이 되어 가는 과정은 세상을 잊은 채 죽도의 자연에 묻혀 살면서 세사에서 비롯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위로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겪은 정치적 부침을 충

44) 양희찬(2010), 앞의 논문, 162~165쪽.

분히 일기로 남길 수 있었던 작가가 굳이 그것을 노래로 한 까닭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화자가 결사에서 “北闕”과 “근심”, “祝聖壽”를 이야기한 까닭은 무엇일까? 결사에서 진술한 바, 변치 못할 “天性”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윤이후가 잊으려 한 것은 자신이 겪은 환해풍과 이자 당파적 관계에 의해 왜곡되어 버린 정치 현실이었는지 사회 그 자체가 아니다. 곧 죽도의 자연에 몰입하여 세상을 버리고자 했지만 사회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사대부로서의 본성 자체를 버리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사의 내용은 재출사의 의지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사건에 따른 정신적 외상을 드러낸 것도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는 사회와의 조화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가의 天人合一” 관념을, 사회와의 합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대부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일민가>가 좋은 작품이라면 그 이유는 개인적 아픔을 위로하는 것과 유자로서의 이상을 회구하는 것이 모순을 이루지 않는 까닭일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 사대부 의식의 지속과 자전적 성격의 강화

지금까지 『지암일기』에 비추어 <일민가>의 창작 배경과 창작 의도를 검토한 다음 <일민가>의 주제 의식을 분석했다. 남인의 일원으로 정치적 부침을 겪은 윤이후는 망세의 공간이자 창작·수창의 공간인 죽도에 은거하며 술회와 우흥의 노래로서 <일민가>를 창작했다. 윤이후에게 닥친 정

45) 성기옥, 「고산 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245~247쪽.

치적 탄압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했으며 죽도에 초당을 짓고 그곳에 몰입하게 된 계기를 제시할 필요도 있었기에 “述玉泉田家之樂”이라고 한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술회하고 있다. “說竹島江湖之勝”이라고 한 후반부에서는 가어옹의 모습으로 죽도의 자연을 완상하며 일민 의식을 드러냈다. 흥을 일으켜 세사를 잊고 죽도의 자연에 묻혀 살려는 뜻을 노래한 것이다.

한편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다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민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단일한 의식의 산물인가, 아니면 복합적 의식의 산물인가. 만일 후자라면, 어떠한 의식이 보다 부각되는가. 둘째, <일민가>의 시가사적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기존의 강호가사를 답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로부터 달라지고 있는가. 이러한 지속과 변화의 양상은 17세기 말, 윤이후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가사 창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이 물음들에 대한 간략한 답을 제기함으로써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일민가>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겉으로 볼 때 <일민가>는 상반된 의식을 동시에 드러낸 작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술회하려는 의식과 잊으려는 의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사를 잊으려는 의식과 잊지 못하는 의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윤이후가 겪은 정치적 탄압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식 층위에서는 그것을 잊으려고 하지만 서술 층위에서는 해당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 데에서 비롯한 갈등이고, 후자의 경우 혼탁한 정치 현실과 사회 그 자체를 분별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자로서의 이상과 부정한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한 번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윤이후의 창작 의식은 현실과의 부조화

에서 비롯한 갈등과 번민이므로 그 근저에는 모두 일민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겪은 정치적 풍파를 기록에 남겨 일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이로 인해 생긴 상처를 일민이 되어 치유하는 것이다. 또한 일민으로서 혼탁한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도 사회와의 합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대부로서의 이상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복합적 의식의 산물이지만 그 근저에는 일민 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일민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을 <일민가>라고 한 까닭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시가사적 위치는 어디인가? 일민 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전대 강호가사의 답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대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유가적 천인합일의 관념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일민가>에 감각적, 즉물적 자연 인식이 나타난다고 본 논의도 있으나 어부가 전통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더 감각적이라거나 즉물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요산요수의 산수 경관을 완상한 뒤 연군의식을 표출하는 성리학적 인식 전개 과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⁴⁶⁾ 이와 같은 경향은 타락한 현실을 직면했음에도 자신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중단할 수 없었던, 세계에 대한 윤이후와 사대부 계층의 집단적 대응 방식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반면 자기 술회의 측면에서 보면 전대 강호가사와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안혜진은 <일민가>를 상춘곡 계열에 속한 것으로 보았는데 <상춘곡>에서는 “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生涯 엇더흔고 // 넷 사름 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 (중략) … // 松竹 鬱鬱裏에 風月主人 되어서라”라고 하며 “風月主人”으로서 자신의 “生涯”를 간략하면서도 긍정적으로

46) 안혜진(1997), 앞의 논문, 99~108쪽. 여기서는 상춘곡 계열에 속한 <일민가>가 누정계 가사의 영향을 받아 요산요수의 산수 경관을 완상한 뒤, 연군의식을 표출하는 성리학적 인식 전개 과정을 보이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평가한 뒤 강호 생활을 읊는 데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일민가>의 서사에서는 강호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부정 어법으로 부연하는 등 마음껏 내세우지 못한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술회한 뒤에야 비로소 죽도에서의 강호 생활을 노래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상춘곡>의 화자도 자신의 삶을 술회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화자의 삶은 전형성을 띤 것으로 사대부 계층의 풍류 생활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민가>에서 화자의 삶은 사대부 계층으로서의 전형성이 약화되고 작가 개인의 체험으로서 개별성과 구체성이 강화된 형태로 제시된다. 물론 윤이후의 삶도 사대부 계층의 17세기적 전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대의 가사에 비해서는 개별화,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술회의 측면에서 보면 전대의 강호가사에 비해 자전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차이를 보이게 된 까닭은 정치적 풍파를 겪은 뒤 죽도에 초당을 짓고 은거한 윤이후가 한편의 일기이자 한편의 가사로서 <일민가>를 지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일기에 남기고 마음에 난 상처를 달래려 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기록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잊어버리기 위해 자신이 겪은 세사에 대해 술회한 결과 <일민가>는 자전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자전적 성격은 여음으로 제시된 그의 시조와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世上이 브리거늘 나도 世上을 브린 後이 // 江湖의 님자 되야 일 업시 누어서니 // 어즈버 富貴功名이 쏘이론 듯 ㅎ여라”. 시조라는 장르의 특성상 일민 의식을 표출하는 데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민가>를 통해 경험적 현실이나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17세기 가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⁴⁷⁾

47) 박연호(2002), 앞의 논문, 189쪽.

한편, 초당을 지은 뒤 은거하게 된 계기로서 자신의 과거를 자전적으로
 슬회하고 초당에서의 삶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어 나가는 전개 방식은
 18세기 이후의 향촌사족 가사로 계승된다. 필자는 지지재((止止齋) 이상
 계(李商啓, 1758~1822)의 <초당곡(草堂曲)>에서 이와 같은 면모를 확
 인한 바 있다.⁴⁸⁾ 다시 말해 18세기 이후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하는 초
 당계 가사의 형식적 전범을 <일민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만 <초당곡>의 화자가 자신의 생활과 책무 그리고 사유의 범주를 향촌
 사회 안으로 제한한 것은 <일민가>의 화자가 사회와의 합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유자로서의 이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과 달라진 점이라고 평
 가할 수 있을 듯하다.

결론적으로 윤이후의 <일민가>는 당대의 혼탁한 정치 현실로부터 벗
 어나려 한 어떤 사대부의 갈등과 고뇌가 반영되어 있는 ‘일민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혼탁한 현실을 떠나 죽도의 자연에 묻혀 살면서도 자신과 사
 회에 대한 고민을 중단할 수 없었던 사대부로서의 의식이 드러나는 작품
 이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계기를 슬회하려는 자전적 성격이 나타나는 작
 품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대부 의식을 지속하는 한편 자전적 성
 격이 강화된 강호가사로서 전대의 가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18세기 이후
 활발하게 창작된 초당계 가사의 전범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누정계 가사의 영향과 그 균열이라는 지점에서 <일민가>를
 다루었는데 이와 같이 초당계 가사의 형식적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본고에서는 윤이후의 <일민가>를 작품론의 층위에서 분석하고 그 시
 가사적 의의를 고찰했다. 본고의 논의 결과는 17세기 당대의 가사 및 18

48) 박영민, 『지지재 이상계의 <초당곡>·<인일가>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0, 한국
 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85~91쪽.

세기 후대의 가사들과 견주어 <일민가>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을 때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능력 부족과 지면상의 사정 등으로 인해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전섭, 『「상춘곡」의 작자를 둘러싼 문제 - 「일민가」와 「상춘곡」의 화동성』, 『동방학지』 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229~251쪽.
- 구수영, 「윤이후의 ‘일민가’ 연구」, 『동악어문논집』 7, 동악어문학회, 1971, 209 ~ 243쪽.
- 김명준, 「<일민가>의 의식 지향과 시가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143~165쪽.
- 박소은, 「17세기 후반 호조의 재정수입 확보책」, 『조선시대사학보』 31, 조선시대사학회, 2004, 113~140쪽.
-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45, 민족어문학회, 2002, 155~193쪽.
- 박영민, 「지지계 이상계의 <초당곡>·<인일가>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73~111쪽.
- 성기욱, 「고산 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205~248쪽.
-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 과정 연구 - 누정계와 초당계 가사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08쪽; 1~150쪽.
- 양희찬, 「<일민가>의 내적 짜기방법」,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147~167쪽.
- 윤영표, 『녹우당의 가보』(비매품), 1988, 1~263쪽.
- 이형대 외,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1~578쪽.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편, 『지암일기 탈초·표점본』, 정미문화사, 2012, 1~477쪽.
-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1~626쪽.
- 조연숙, 「<일민가> 연구 - 작가의식과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 『한국시가문화연구』 22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08, 315~336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3 - 해남윤씨편 정서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988쪽.

ABSTRACT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Themes of <Ilminga>
: Focused upon 『Ji-am Diary』

Park, Yeong-min

Yoon I-hu's 'Ilminga(逸民歌)' is Ganghogasa(江湖歌辭), which is included in 'Ji-am Diary(支庵日記)', the author's handwriting diary. This work has neither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he academia for being a son of Yun Seon-do and a father of Yun Du-seo; nor been a subject for debate, even though in his diary, there were clues to presume the 'Ilminga's' background and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background and intentions in the 'Ilminga' creation in aspect of 'Ji-am Diary'; and then analyzed the theme of 'Ilminga'; and discussed its meaning.

A member of Namin(南人), Yoon I-hu, who had underwent severe political ups and downs, created 'Ilminga', a song of his memories and poetic spirit in a island, Jukdo(竹島) letting him forget the world, create, recite and sing a poem and a song. In the first part of "述玉泉田家之樂", he reminisced about why he immersed himself into Jukdo, building up a thatched cottage. In the latter half of "說竹島江湖之勝", he seems to have tried to be a retired scholar just appreciating the Jukdo's nature as a Gaeoong(假漁翁) and forgetting the worl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is work may be called 'Ilmin's song' containing his own conflict and anguish over the society where he had escaped due to the oppressive political reality in those days. While living in the nature of Jukdo, leaving the unclear reality, he revealed the consciousness of former Sadaebu(士大夫) and was not able to stop worrying about himself and the society, and the results show that his work has the self-explanatory characteristics saying why he chose such a life. The results also suggested that it is a work that provided the

formal foundation of a kind of “Chodanggasa”, which had been actively created since the 18th century, preserving the former Sadaebu’s consciousness and strengthening the self-explanatory characteristics.

Key Words Yun Seon-do, Yun I-hu, Jiam Diary, Ilminga, Reminiscence, Ganghoga

논문투고일 : 2017.12.31
심사완료일 : 2018.02.05
게재확정일 : 2018.02.13